

# 문화관광부, 불법 복사·복제 출판물 합동 단속 실시·외

문화관광부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기술저작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의회,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등 출판·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합동단속반과 관련 단체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001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경인지역에 위치한 대학가 구내의 복사·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복사·복제출판물 제작·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9월 신학기에 맞춰 매일 6~7개 반으로 편성된 지도·단속반은 15일간 대학가 구내의 325개 복사·인쇄업체 가운데 'M기획' 등 169개 업체의 불법 복제 행위를 적발해 《고체전자공학》《법학개론》 등 복제출판물 367권을 수거했으며, 'C복사' 등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학술출판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복제근절을 계도하는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 불법복제예방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지난 3월 봄학기에 실시한 불법복제출판물 일제 단속과 언론매체 보도 등의 영향으로 이번에 단속된 불법복제물 367권은 3월에 단속된 1,072권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했으나, 아직도 일부 복사업체들은 대학교재 및 학술출판물에 대한 복제행위

를 음성적으로 지속하고 있어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학술출판물 저작권을 보호하고 출판물 저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복사전송권관리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지도 및 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2002년도 문화예산을 확정·발표했다. 2002년도 문화예산은 1조 1,925억원 규모. 문예진흥이 5,006억원으로 42%, 문화산업 부문이 1,896억원으로 15.9%, 관광진흥이 2,132억원으로 17.9%, 문화재 부문이 2,891억원으로 24.2%를 차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1조 458억원 대비 14%, 1,4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2002년 예산안 가운데 출판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올해 97억원에서 134억원으로 38.9% 증액했으며, 문화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진흥에 5백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자출판물의 급증으로 인한 도서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1단계 잔여 사업비로

한국서련·출판협회 공동 집계



불법 복사·복제 출판물 합동 단속 후 관련 단체 대표들이 회의하는 모습.

총 473억원을 지원한다.

| 3704-9620 | www.mct.go.kr

## 출판협회, '제15회 책의 날' 기념행사 열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이하 출협)는 10월 4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문화관광부와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출판관련단체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제15회) 책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출판문화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 대한 정부 표창 및 각종 시상식도 겸했다.

▲정부 표창은 대통령 표창에 (주)생각나라 백석기 대표와 (주)지경사 김병준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에 (주)영교 조은상 대표, 김형운편집회사 김형운 대표, (주)김영사 박은주 대표가,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에 들녘 이정원 대표 등 모두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8회 독서진흥상은 문고 부문에 구미시 소나무 새마을금고, 단체 부문에 한국토지공사, 개인 부문에 금호생명 송기혁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31회 한국출판공로상은 기획·편집 부문에 (주)영진닷컴 한상진 부사장, (주)천재교육 오병목 상무이사, 영업 부문에 미래문화사 임종관 영업부장, 관리 부문에 (주)학원출판공사 이병수 총무부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1년도 관련 업계 출판 유공자 표창은 인쇄 부문에 한보인쇄사 정용식 대표, 제책 부문에 우일사 황인준 대표와 영광정공 박행주 대표, 서적상 부문에 수원시서점조합 서동환 조합장 등 모두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출협은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34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을 위한 대상도서를 접수한다. 대상도서는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 기간에 처음 발행된 도서(CD-ROM 등 전자출판물 포함. 단 교과서, 학습참고서,

## 베스트셀러 종합순위(2001.9.16~9.22)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비소설
2	The Blue Day Book	브레들리 트레버 그리브	바다출판사	비소설
3	바이올렛	신경숙	문학동네	소설
4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한비아	푸른숲	비소설
5	황태자비 납치 사건	김진명	해냄출판사	소설
6	협상의 법칙	허브코헨	청년정신	비소설
7	거울	원성	이레	비소설
8	황정업비록공개	황정업	월간조선사	비소설
9	이슬람	이희수 외	청아출판사	비소설
10	등대지기	조창인	밝은세상	소설

정기간행물 및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신청한 도서를 제외)다. 선정분야는 총류·어학, 종교·철학, 문학, 예술, 문화일반·문화재, 아동·청소년·만화, 사회과학, 과학기술, 역사, 번역(한국어도서의 외국어번역에 한함)의 10개 분야다.

선정된 도서는 한국출판금고(이사장 김낙준) 양서 보급 지원금으로 일정 부수를 구입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 735-2701 | www.kpa21.co.kr

### 간행물윤리위원회, <제43차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청소년에게 도서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이 읽을 만한 좋은 책 40종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문학(4종)—《젓은 손으로 돌아보라》(황동규, 문학동네), 《빈산엔 노랑꽃》(장돈식, 학교재) 외. ▲역사(4종)—《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1》(정연식, 청년사), 《위험한 교과서》(타와라 요시후미,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역사넷) 외. ▲철학(3종)—《우리 시대의 윤리》(김태길 외, 뜨인돌), 《알도와 떠도는 사원(1~2)》(김용규, 이론과실천) 외. ▲정치(3종)—《누가 미국을 움직이는가》(소에지마 다카히코, 신동기, 들녘),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도진순, 당대) 외. ▲경제·경영(3종)—《카리스마 VS 카리스마》(홍하상, 한국경제신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하기》(마이클 미칼코, 박종안 외, 푸른솔) 외. ▲사회(4종)—《문화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김중순, 일조각),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박상필, 한울) 외. ▲과학(5종)—《알이 닭을 낳는다》(최재천, 도요새), 《생물의 애육살이》(권오길, 지성사) 외. ▲예술(3종)—《알기 쉬운 한국 도자사》(유홍준 외, 학교재), 《유럽 테마여행(1,2)》(장열곤 외, 서울문화사) 외. ▲교양(5종)—《당신의 박수가 한번 더 필요합니다》(박창원, 청조사), 《우리 삼살개》(하지홍 글·임인화 사진, 창조문화) 외. ▲아동(6종)—《아주 소중한 사랑이야기》(소중애 외, 청동거울), 《뽕들고 자는 언니》(고형렬 글·이상규 그림, 창작과비평사) 등이다. | 669-0772 | www.kpe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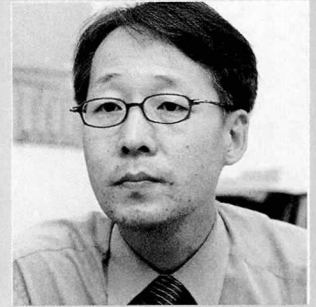
### 출판인회의, 출판인 해외연수사업 지원자 모집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백봉제기념 출판

## 새벽 2시까지 불 밝히는 국내 최초 편의서점 탄생

### 씨티문고, 편의서점 서비스 개시

씨티문고(대표 송영석) 강남점이 최근 편의점 경영방식을 도입해 화제다. 그동안 서점가에서 불문율처럼 지켜온 저녁 9시 폐점시간을 과감히 새벽 2시로 늦춘 것. 이는 최근 인터넷 서점의 급성장으로 침체된 오프라인 서점이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씨티문고 강남점 김인영 영업부장을 만나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배경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씨티문고 강남점 김인영 영업부장

“강남지역은 소비중심지역이죠.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퇴근이나 일과 후 서점을 찾는 사람들은 더 여유 있게 서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말에 집중된 서점 혼잡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씨티문고는 현재 본점인 강남점을 비롯해 이대점과 돈암점, 두 개의 본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편의서점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강남점이다. 우선 본점을 중심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른 두 곳은 두달 동안의 성과를 고려해 서비스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점을 찾는 고객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저희 서점은 20~30대 여성들이 주고객층인데, 무엇보다 여유 있게 책을 고를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죠.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연장된 시간대에 서점을 찾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2시를 전후한 시간까지는 내방객이 제법 많은 편이다. 하지만 12시부터 2시까지가 문제다. 그 시간이면 버스나 전철이 끊겨 술자리를 털고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면 서점을 찾을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부장은 “지금은 시장성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 더 지켜볼 예정이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씨티문고는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기존의 2교대에서 3교대방식으로 바꿨다. 10명이 한 팀을 이뤄 일주일씩 교대한다. 연장시간대에 근무하는 팀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한다. 낮 시간 근무보다 실근무시간은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새벽까지 근무하는 일이 직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매장직원 이모씨는 “아간근무가 생각보다 힘들진 않지만 퇴근할 때가 문제다. 대부분 택시를 타거나 휴게실에서 버스운행시간까지 기다린다”며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씨티문고의 새로운 변신이 서점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박옥순 기자

문화진흥재단(가칭)에서 시행하는 출판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1차년도 연수생 선정작업을 위임받아 ‘출판인 해외연수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영어 어학연수부문에 두명을 선정하고, 선정자는 영국 런던 소재 London Institute의 General English 과정에 등록해 2002년 5월 6일부터 12주간 수강한다. 지원 자격은 1961년 이후 출생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출판사에 근무하고, 2001년 11월 현재 재직중인 출판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출판사 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왕복 항공료와 수강료, 체재비를 포함해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마감은 11월 15일이며, 접수는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에서 받는다.

| 3443-0623 | www.kopus.org

### 범우사,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열어

범우사(대표 윤형두)는 지난 9월 22일(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범우사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제 11회 범우출판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및 제 16회 독후감 현상모집 시상식과 아울러, 《책과 인생》에서 수필로 등단한 신인 수필가를 축하하는 행사 등으로 이어졌다. | 717-2121 | www.bumwoosa.co.kr